

Art

아트인컬처
November 2019

Special Feature /
창간 20주년, 한국미술 20년
Contemporary Artists 100
Exhibitions 1999-2019

Artist /
공성훈, 김윤철

Report /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 바다미술제

David Hockney

b.1937 영국

Linn Meyers

b.1968 미국

Gary Hume

b.1962 영국

Barbara Kruger

b.1945 미국

섹슈얼리티가 녹아든 풍경

현존하는 작가 중 가장 영향력 있고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 그는 타고난 소묘 기술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양식을 구사하며 드물게 학생 시절부터 명성을 얻었다. 만화적 기법 195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한 그는 미국 추상표현주의가 각광받는 와중에 추상과 재현적 이미지의 경계를 흐리는 기법을 탐구했다. 1960년대 보수적 사회 분위기 내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과 욕망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며 영국 팝아트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후 스스로 “나는 팝 아트 예술가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한다. 로스엔젤레스로 이주하며 본격적으로 그림 속 남성의 신체와 풍경 속에 섹슈얼리티를 녹여 낸다. 또한 구상적인 표현에 언어적 암시와 기하학적 패턴을 결합하거나 당대 유행했던 패션을 참고해 그림의 주제로 활용하기도 했다. 1970~80년대에는 피카소의 영향을 받아 판화에 집중하거나, 1990년대 이후 사진에 관심을 갖고 대형 풍경화를 제작하는 등 매체 활용의 폭을 넓혔다. 또한 그는 1978년 뉴욕에서 열렸던 오페라 <마술피리>의 의상과 무대 장치를 제작하며 연출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올해 3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아시아 첫 대규모 회고전에서 회화 드로잉 판화 총 133점을 선보였다. (C)



점과 선, 우주의 풍경



린 마이어스는 ‘시간의 순례자’로 통한다. 패널에 어두운 색으로 밀바탕을 깔고 오랜 공을 들여 점을 촘촘히 배치시켜 기하학적이고 불규칙한 형상을 표현한 회화를 발표했다. 수많은 점은 마치 광활한 우주의 모습과 흡사한 추상적 풍경을 만들어 낸다. 또한 추상적 형상에서 익숙한 사물을 찾기보다 자유로운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대부분 작품제목은 <무제>로 달았다. 2000년부터 제작한 대형 벽화에는 선이라는 조형 요소가 더해진다. 그는 2011년 해머미술관에서 건물 계단 벽면을 따라 상승과 하강의 운동이 동시에 느껴지는 형태의 선 조합을 그렸다. 2016년 워싱턴 D.C 혼슈미술관 조각공원에서 가진 개인전에서는 원형 복도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대형 벽 드로잉을 선보였다. 2018년에는 사운드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협업해 자신의 벽화 작품을 스코어 삼은 음악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C)

산업용 재료의 일상적 회화

게리 훈은 영국 동시대미술을 세계에 알린 yBa의 원년 멤버다. 1988년 yBa의 역사적 데뷔 무대였던 전시 <프리즈>에도 참여했다. 1980년대 말, 병원이나 학교에서 보이는 스윙도어에 그려낸 <도어> 시리즈를 발표했다. 산업용 목재 MDF 패널에 유광 페인트를 사용해 심플한 형태로 환원된 모티프를 몇 가지 색으로 칠한 이 시리즈가 높은 평가를 얻었다. 이후 목재 및 알루미늄 패널, 산업용 페인트 같이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회화 재료를 일관되게 사용하며, 일상에서 관찰한 주변 인물, 유명 인사, 꽃과 동물, 사물 등 소재를 다양화했다. 특히 그의 모친은 작가가 자주 그리는 대상 중 하나다. 밝은 컬러의 단순한 색면 조합으로 구성된 그의 회화는 극도로 절제된 표현으로 인해 구상과 추상회화의 경계에 위치한다. 제48회 베니스비엔날레 영국관, 제22회 상파울루비엔날레 등에 참여했다. (C)

광고적 수법, 사회를 재단하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 여성잡지 에디토리얼 디자이너로 종사했다. 사진과 짧은 문구를 조합시켜 이미지에 신선한 인상을 부여하는 크루거의 메시지에는, 이 경력이 활용되었다. 작품에 사용된 흑백사진은 주로 기존의 광고사진이며, 이러한 메시지의 유동은 1980년대의 ‘인용(appropriation)’이라 불리는 수법의 대표적인 예다. 그의 문구에는 소비문화와 개인 정체성의 밀접성에 대한 크루거의 비평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1989년에는 중절옹호단을 위한 작품 <당신의 몸은 전쟁터다>를 발표하는 등 폐미니즘의 관계가 깊고 미디어 사회의 남성 주권에 의문을 던지는 작품이 특징이다. 특히 그는 대중 커뮤니케이션과 광고 미디어를 사용하는 젠더와 정체성을 탐구한다. 2016년 뉴욕 매거진 표지로 도널드 트럼프 선거에 항의하는 작품을 만들고, 2017년 1월 20일 취임 보이콧에 참여한 바 있다. (K)



왼쪽부터 · 데이비드 호크니 <워터 근처의 더 큰 나무들 또는(또는) 새로운 포스트-사진 시대를 위한 야외에서 그린 회화> 50개의 캔버스에 유채 457.2×1220cm 2007 / 린 마이어스 <무제> 패널에 아크릴 잉크, 플래쉬 182.9×157.5cm 2018 / 바라크루거 <Forever> 전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전경 2019 / 왼쪽 페이저 · 작품 <Tired Child> 앞에서 게리 훈